

홍수 직전의 세상

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세상을 심판하셨을까? 그 중에서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사람을 멸하시기로 걱정하셨을까? 홍수 심판을 결정하시기 직전 하나님의 마음은 이랬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 창세기 6:6

세상은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했고 계획이 밖으로 드러난 결과는 부패와 포악함이었다. 사람이 쏟아 놓는 부패와 포악함이 세상에 가득했다. 생육과 번성하여 인구가 늘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했지만 그 반대였다. 이미 생육과 번성은 올바른 결혼관계 밖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성적타락으로 죄가 확산되는 통로가 되어 있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 창세기 6:1-2

이제까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서로 혼인하지 않았었다. 이 구절에서 가장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는 것인데 일단 더 중요한 문제부터 살펴보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라벨이 시작한 일부다처제도가 극에 달했음을 말해준다. 아내로 삼게 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눈으로 보고, 마음에 좋아지면 그대로 아내로 삼았다는 것인데 선악과를 먹을 때의 ‘본즉’, ‘보암직하고’, ‘먹은지라’와 같은 패턴이다.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대로 선택하는 패턴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론이 있다. (1) 천사들이라는 견해다. 그러나 천사는 육이 없고 천사와 인간이 혼인을 한다는 것은 지나친 상상이다. (2) 고대의 유력한 지도자들, 왕족을 의미한다는 견해다.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고대 그리스까지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스스로 신이라 칭하거나 신의 아들이라 선언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그러나 출애굽 전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신이라 칭하는 파라오를 계속 만났던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런 의미와 뉘앙스를 가지고 본문을 기록했을 것이라 생각하기는 힘들다. (3) 셋의 후손들이라는 견해다. 셋의 아들 에노스 때로부터 사람들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웠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가인의 후손들이 낳은 딸들을 사람의 딸들로 보는 견해다.

나는 세 번째 견해가 옳다고 생각한다. 셋의 계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고 가인의 후손들과 혼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가인 계보에서 태어난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혼인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죄에 동화되어 갔고 그로 말미암아 더 깊고 위험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마에 땀을 흘리며 넉넉치 못한 식량으로 연명하던 셋의 후손들에게 어려서부터 고기를 먹으며 자란 여인들을 목격하는 것은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당연히 건강했고 그들 중에는 용사도,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었을 것이다.

어떤 견해가 더 타당한가를 떠나서 더 집중하고 싶은 것은 앞서 말했던 마음에 내면화된, 구조화된 죄의 패턴이다. 아담과 하와 이후 많은 세대가 흘렀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한 사람은 에녹 단 한 사람 뿐이었다. 가인의 후손들은 풍요로웠지만 더 깊이 타락했고 그나마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던 셋의 자손들도 믿음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기 때문에 말씀 대신 죄를 택했듯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러한 죄의 패턴은 우리에게도 남아 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